



IP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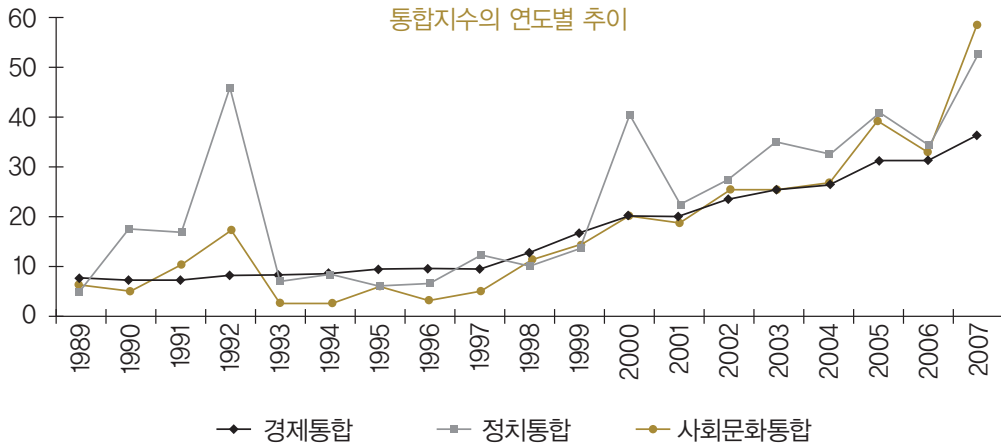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문화관 (73동) 통일평화연구소 **Homepage:** <http://tongil.snu.ac.kr>
Tel: 02) 880-4052-4 **Fax:** 02) 874-7305 **E-mail:** tongil@snu.ac.kr **발행인** 박명규 **편집** 한준성, 한경은

남북통합지수 개발



2008년 11월 11일(화) 본 연구소는 “남북통합지수”를 개발, 발표하여 많은 연구자 및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남북통합지수는 남한과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의 수준과 정도를 계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 지표로 개발된 것이다. 이 남북통합지수는 연구소 통일연구실장인 김병연 교수, 박명규 소장, 김병로 교수, 정은미 선임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2년여의 연구기간을 거쳐 개발된 것이다.

이 통합지수는 통일을 ‘과정’으로서 인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통합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수치로 보여주는 지적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8년에 발표한 남북통합지수는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3개 분야를 각각 제도적·관계적·의식적 통합으로 구분해 수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향후 일년 단위로 갱신된다. 2007년 지수는 1000점 만점에 272.7점으로 남북통합률은 27.3%이고 0~10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989년부터 2007년까지의 남북통합수준을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정치통합,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 간에는 서로 연결되면서도 각각 구별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북통합수준이 과거처럼 역행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4~5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지속적인 동력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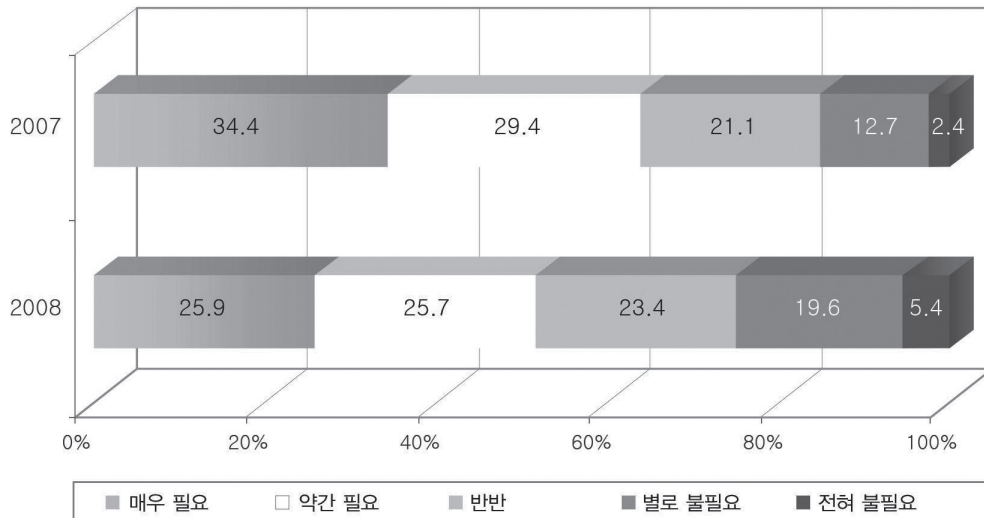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로 개칭

2008년 8월 22일, 본 연구소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에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통일학의 정립을 내세우고 출범한 우리 연구소는, 그동안 각계의 성원과 도움에 힘입어 짧은 시간 내에 주요한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연구소 출범 4년 차에 접어들면서 통일학 연구의 지평을 공간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확대하고 전세계 평화구축이라는 과제와 연계해 연구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취지에서 “통일평화연구소”로 개칭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도 남북관계 및 통일전망을 연구하는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통일과 평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해갈 것입니다. 새 이름을 얻은 우리 연구소는 이제 그 이름에 걸맞도록 냉철한 분석과 참신한 이론으로 남북관계의 현실과 한반도의 미래전략을 모색하고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학연구소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또 현장에서 요구되는 대안과 정책적 논의에도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소를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8 통일의식 조사 실시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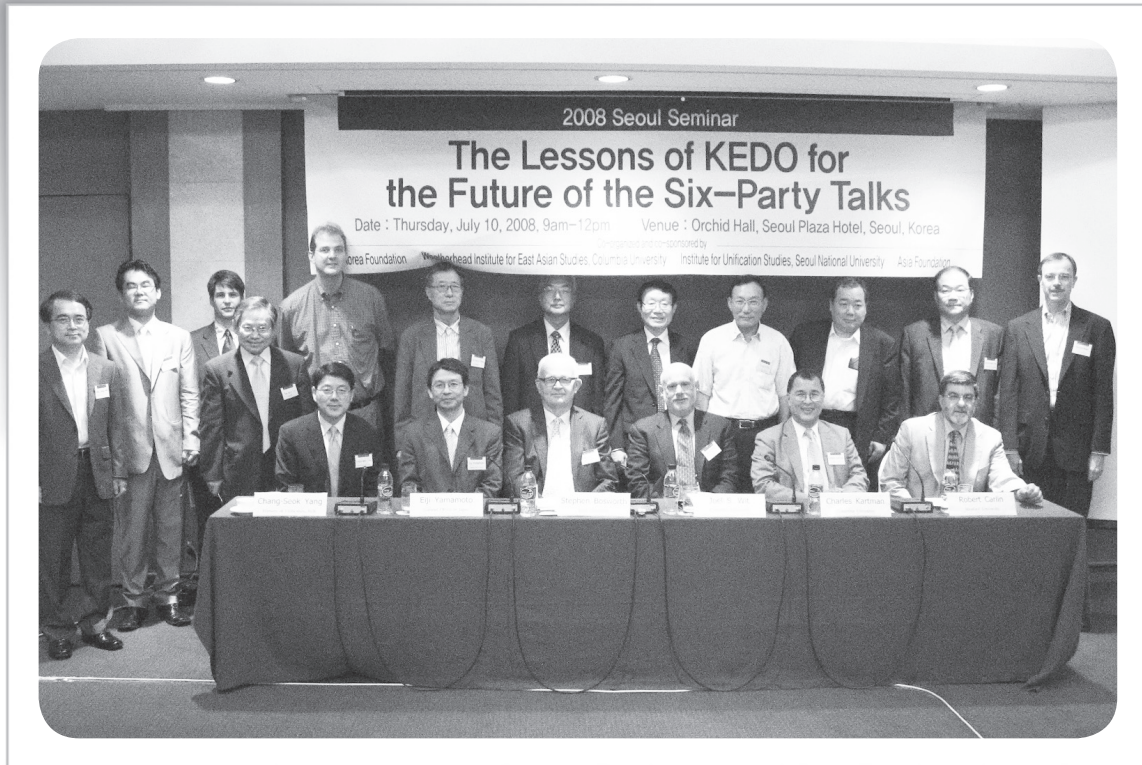
지난해에 이어 연구소는 2008년도 전국민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목)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8 통일의식조사는 박명규 소장의 책임 하에 국방대학원 김병조 교수, 통일연구원 박영호 선임연구위원, 통일평화연구소 김병로 연구교수, 정은미 선임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연구소는 한국궤협에 의뢰하여 2008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 동안 1:1 개별면접조사 방법으로 전국 16개의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1,2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통일에 대한 인식, 대북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새터민에 대한 인식,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등 다섯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사는 2007년도 조사와 거의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함으로써 지난 1년간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지난 1년은 이명박 새정부의 출범에 따라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금강산 관광객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도 달라지게 되면서 변화된 국민의 의식전환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연구로 평가된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자면, 지난 한해 동안 첫째, 의식상의 보수적 경향이 심화되었고, 둘째, 현실주의 경향이 증대하였으며, 셋째,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에서 북한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넷째,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현저히 증가했으며, 마지막으로, 남북관계와 국제협력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식조사 분석팀은 2008통일의식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과 관성화된 의식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과 더불어 남북관계에서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감당해야 할 몫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의식의 보수화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것을 북한과의 전면적인 대결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고 정부의 종합적이고 건설적인 정책을 강조하였다. 이 조사 결과는 11월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KEDO의 교훈과 6자회담의 미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2008년 7월 10일 서울 프라자호텔 오키드홀에서 미국 콜롬비아대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Weatherhead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아시아재단과 공동주최로 'KEDO의 교훈과 6자회담의 미래'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보스워스 전 주한 미 대사와 찰스 카트만 전 KEDO 사무총장, 로버트 칼린 전 KEDO 사무총장 정책보좌관, 조엘 위트, 에이지 야마모토 일본 외무성 북한정책과 담당관, 양창석 통일부 국장 등이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반도 에너지기구(KEDO)의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미 대사는 6자회담에서 중국의 비중, 러시아의 참여 등을 예로 들며 "지금의 상황이 KEDO를 설립할 당시와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많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KEDO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가한 야마모토

일본 외무성 담당관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요 행위자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을 필요가 있다"면서 "6자회담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KEDO에 참여했던 한,미,일 3국 중 어떤 나라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가 없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는 핵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EDO에서 근무했던 통일부의 양창석 국장은 "북핵문제는 북미관계에 많이 좌우된다"면서 "6자회담이 잘 진척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정치적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는 박명규 소장을 비롯하여 에드워드 리드 아시아재단 한국대표, 린 마샬 UNHCR 한국대표, 이해옥 WFP 서울사무소장 등 50여명의 국내외 학자·전문가가 참여하여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평화의 시각에서 다시 보는 남북관계



2008년 10월 9일, 연구소의 개칭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심포지움이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평화의 시각에서 다시 보는 남북관계”라는 제목의 이 심포지움은 연구소의 새로운 명칭을 통일·평화문제 연구자 및 활동가들 사이에 널리 홍보하고, 이들과 연대함으로써 통일연구의 외연을 평화연구로 확대하자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서울대 이장무 총장과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축사로 시작된 이 심포지움은, 오전의 패널 토론에서 제니스 린 마셜(UNHCR 한국사무소 대표), 에드워드 리드(아시아 재단 대표), 스티븐 린튼(유진 벨 재단 대표), 사라 폴스(한스 자이텔 재단 수석연구원) 등 한반도 통일·평화 관련 NGO 및 활동가들이 참석하여 각 단체의 활동과 목적에 대한 소개,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평화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분단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오후 첫 세션에는 김지하 시인이 “컨셉터” 개념을 도입하여 남북관계를 창조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주목받았다. 카톨릭신학대의 변진홍 교수는 분단과정과 통일에서의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발표하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서보혁 교수 (이화여대)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평화의

시각에서 보는 한반도 전략”이라는 제목의 오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주로 남북 관계의 국제 정치적 측면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백진현 교수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남북한간 신뢰구축과 군사적 위협과 대결구조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어 국가안보연구원의 조성렬 실장은 김정일의 유고설로 불거진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과 그 대처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 발표에서 조실장은 북한의 급변사태의 가능성은 실제로 높지 않으며,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체제 차원의 변화없이 수습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운 대표는 새 남한 정부의 시각과는 달리 남북 경험이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의 심포지움은 하루 종일 이어진 토론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150여명의 인원이 모여 좌석이 모자를 정도의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김지하 시인의 서울대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은 각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이 심포지움은 연구소의 개칭을 기념하여 학계, 관계, NGO 등 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관련된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

축사 및 패널 토의(10:00~12:00)

- 축사 1 이장무 총장
- 축사 2 김하중 통일부 장관

패널토의 : 국제기구 및 NGO가 보는 한반도 평화

- 사회 정진성(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패널 Janice Lyn Marshall(UNHCR 한국사무소대표)
- Edward Reed(Asia Foundation)
- Steven Linton(유진벨재단)
- Sarah Kohls(한스자이텔 한국사무소 수석연구원)

제1세션: 평화의 시각에서 보는 분단과 통일(14:00~15:50)

- 사회 권영민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발표 김지하(시인)
 - 생명, 평화, 통일
- 변진흥(가톨릭신학대학교 교수)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의 역할
- 서보혁(이화여대 학술원)
 - 평화의 시각에서 보는 북한인권과 탈북자

- 토론 법 룬(평화재단 이사장, 정토회 지도법사)
- 박종화(국제의료재단 이사장, 경동교회 목사)
- 이금순(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제2세션: 평화의 시각에서 보는 한반도 전략(16:00~17:50)

- 사회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 발표 백진현(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북핵 6자회담의 전망과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소장)
 -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반도의 평화적 관리
- 김영운(남북물류포럼 대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평화의 시각에서 보는 남북경협 전략
- 토론 허 철(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
-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북통합지수 전문가 워크숍



통일평화연구소는 2008년 11월 11일(화) 인문대 신양인문학술정보관에서 “남북통합지수 개발, 의의, 활용” 주제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남북통합지수는 남한과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통합도를 계량적 지수로 표현한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서울대 통계학과 박성현 교수가 사회를 보고 토론자로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최대석 교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통일연구원 박종철 선임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현근 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수석연구원,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이찬호 과장, 통계청 통계정보국 서찬일 행정정보팀장, MBC 김현경 전문기자,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장용훈 기자, 중앙일보 신창운 여론조사 전문기자가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연구소는 통일을 ‘과정’으로서 인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통합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를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도구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통합지수를 개발하였다. 2008년에 발표한 남북통합지수는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3개 분야를 각각 제도적·관계적·의식적 통합으로 구분해 수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향후 일년 단위로 갱신된다. 2007년 지수는 1000점 만점에 272.7점으로 남북통합률은 27.3%이고 0~10단계 중 남북협력도약기인 3단계로 분석됐다.

한반도 정세 전망과 남북 관계 발전 방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와 통일연구원,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은 2008년 11월 10일(월) ‘한반도 정세 전망과 남북 관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사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서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한반도 정세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의 주제의 발표를 통하여 최근 북한 정세를 평가하고 오바마 차기 정부 등장을 계기로 북핵협상, 특히 6자회담의 향방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어서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남북 경험 10년의 평가와 발전 과제’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하여 지난 20년간의 남북 경험에 관하여 평가하고 현재의 대북 경제 정책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생·공영을 위한 바람직한 대북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상생·공영의 대북 정책의 특징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상생·공영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의 도전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전망하였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이봉조 前 통일부 차관, 제성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가 참여하여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14:00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인사말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축사 홍양호 통일부 차관

14:30~15:30 주제 발표

- 한반도 정세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안보통일연구부장
- 남북 경험 20년의 평가와 발전 과제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상생·공영을 위한 바람직한 대북 정책 방향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30~15:40 Coffee Break

15:40~17:30 종합토론

사회 장달중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이봉조 前 통일부 차관
제성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2008년도 하반기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에너지·새터민·의식



2008 제3차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 에너지/새터민/의식”을 대주제로 하여 2008년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제1회에서 제1발표를 맡은 이순형 교수는 탈북자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과정에서의 개인과 가족의 상처는 곧 남한, 북한, 그리고 중국의 사회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정란 박사는 여성 새터민 입국 증가와 그들의 삶을 조망할 때, 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에서의 지원 정책 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합적인 취업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회의(사회: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에서 허은녕 교수는 북한의 에너지 부족현상의 원인을 점검하는 한편, 에너지 지원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원인들을 분석, 대북에너지 지원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준기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남북한 경제 통합의 핵심 이슈는 국유기업 처리방안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북한의 국유기업 문제는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제3회의(사회: 박태균 서울대 국제학과 교수)에서 정용욱 교수는 ‘6·25 전쟁기 주한미군의 노획 기록물’에 대한 지난 4년간의 문헌 조사와 목록 작성 작업 결과인 노획문서 목록과 지난 1년간 조사된 선별노획문서에 대한 포괄적 정보 및 목록과 DB 작성의 실례를 제시하였다. 정은미 박사는 2007년과 2008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시계열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태도가

통일인식과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는가를 제시하였다. 박영호 박사는 동일한 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 국민의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향후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중요 고려사항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제1회의 : 새터민 10:00~11:30

사회 : 조흥식(사회복지학과 교수)

제1발표 탈북후 가족해체 및 재구조화 현상과 심리적 부적응

발표 : 이순형(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토론 : 조영아(서울사이버대학 교수)

제2발표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여성새터민 취업지원 방안 연구

발표 : 박정란(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 : 이금순(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제2회의 : 에너지·기업 13:00~14:30

사회 : 이태호(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제3발표 : 남북한 에너지자원 기술협력 체제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발표 : 허은녕(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토론 : 김대형(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제4발표 : 북한국유기업의 지배구조 분석과 대응

발표 : 김준기(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 : 최수영(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제3회의 : 문서·자료·조사 14:45~17:00

사회: 박태균(국제학과 교수)

제5발표 : 미국국립문서관 소장 ‘선별 북한 노획문서’ 목록 및 ‘북한노획문서’ DB 작성

발표 : 정용욱(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토론 :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제6발표 : 2008통일의식조사(I): “대북정책 평가태도와 통일인식의 변화”

발표 : 정은미(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 : 임재천(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원)

제7발표 : 2008통일의식조사(II):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인식의 현실주의적 변화”

발표 : 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 황지환(명지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제19차 통일학 세미나 개최



통일평화연구소는 농경제사회학부와 공동으로 2008년 7월 15일 제19차 통일학 세미나를 농경제사회학부 세미나실(200동 8201호)에서 개최하였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이 세미나에는 평화경제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뉴욕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의 마나스 체터지(Manas Chatterji) 교수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Hanns Seidel Foundation) 서울사무소 대표인 베른하르트 켈리거(Bernhard Seliger) 박사가 발표하였다. 체터지 교수는 “갈등관리, 평화경제학, 평화학의 기술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평화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해 발표했으며, 켈리거 박사는 “북한의 재정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 논문을 발표했다.

제20차 통일학 세미나 개최

• 주제 : 북한-중국간 경제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구조

• 날짜 : 2008. 8. 11

21차 통일학 세미나 개최 : 북한문학의 전개 과정과 양상



- 발표 김학렬(문예동 중앙 문학부장)
- 북한의 시문학의 전개과정 권영민(서울대 국문과 교수)
 - ‘학렬문고’를 통해 본 초기 북한문학의 양상
- 토론 박태상(방송통신대 교수)
- 방민호(서울대 국문과 교수)

세미나에 앞서 서경호 서울대 중앙도서관장은 김학렬 박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동안 다소 소외되어있던 북한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층 고취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축사에서 밝혔다. 이어 박명규 통일평화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김학렬 박사는 좀처럼 접하기 힘들었던 현대 북한의 평론과 시를 소개했다. 반면 권영민 서울대 국문과 교수는 과거 해방후 격동적인 문단계와 문인들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번에 기증된 북한 문학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두 발표에 이어 박태상 방송통신대 교수와 방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약 7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해외에서 한국문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최경희 교수와 중국 북경대학의 김경일 교수가 참석하여 의미 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며, 북한문학을 연구하는 대학원생들도 역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통일평화연구소는 서울대 중앙도서관과 공동으로 2008년 10월 17일 15:00~17:00에 제19차 통일학 세미나를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212호실)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전 일본 조선대학 문학부 교수인 김학렬 박사가 소장하고 있던 북한문학 관련 도서의 서울대 중앙도서관으로의 기증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도서는 권영민 교수와 박명규 소장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담당자와 함께 지난 여름 일본의 김학렬 교수댁을 방문하여 기증을 받은 것으로 세미나는 그 책자들의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제11차 통일정책포럼

통일평화연구소는 2008년 7월 2일(수), 미국 스탠포드 대학 아태연구센터(The Walter H.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의 신기욱 소장을 초청하여 이명박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에 관한 제11차 통일정책포럼을 진행하였다. 호암교수회관 릴리룸에서 진행된 이 포럼에서 신소장이 발표한 한국 새정부의 통일정책은 “New Beginnings in US-ROK alliance” 라는 보고서로 발간되었으며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간의 관계 변화와 미래의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날 신기욱 교수의 발표에 이어 전 통일부장관인 세종연구소의 이종석 박사, 전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위원장인 이수훈 경남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정재호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을 이끌었다. 국제대학원의 한영혜 교수, 농경제사회학부의 최영진 교수,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SAIS의 서재정 교수 등 20여명의 학자·전문가가 참석하여 질문과 토론을 이어갔다.



제12차 통일정책포럼

2008년 9월 23일, 제12차 통일정책포럼이 “대북정책의 과제와 남북관계 전망” 을 주제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320호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발표를 맡은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의 두 시간여에 걸친 발표가 있은 후, 전재성 교수(서울대학교 외교학과)의 토론과 청중의 질의응답이 열띤 분위기 속에 이어졌다.

서재진 원장은 발표에서 북한의 변화하는 실태를 감안하면서 향후 5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남북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남북관계 방향을 전망하였다. 서 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명칭이자 기조는 ‘남북 상생·공영(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이라면서, 상생·공영이라는 개념에서 보듯 이것은 북한의 흡수통일이나 체제붕괴를 염두에 둔 것이 결코 아니며 북한의 발전과 남한의 발전을 연계시켜 모두 함께 도약시키는 구상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3차 통일정책포럼

통일평화연구소는 2009년 1월 21일(수),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담당자를 면담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아태연구센터(The Walter H.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의 신기욱 소장과 동 대학의 데이빗 스트로브(David Straub) 교수를 초청하여 미국 오바마 정부의 對남, 對북정책에 대한 예측과 제안에 관한 제13차 통일정책포럼을 진행하였다. 코리아나 호텔 프린스 룸에서 진행된 이 포럼에서 신기욱 교수는 북한 문제를 비핵화를 넘어서는 큰 틀에서 다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포괄적 협상으로 갈 수 있다고 전망하였고, 데이빗 스트로브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맥과 관련하여 능력과 경험, 성격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두 초청 전문가의 발표에 이어서 진행된 토론 시간에는 북핵문제 해법에 관한 전망과 더불어 한미 정상회담 및 FTA의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에 관하여 윤영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박명규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길정우 중앙일보 고문 등 함께 참석한 16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자들과 함께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대학원생 월례연구모임

서울대 북한 연구 모임은 북미관계와 6자회담에 관한 대학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장달중 교수(정치학과)가 자문하고 있는 이 모임은 이정철 교수(송실대 정의과)와 임수호 박사(삼성경제연구소)의 도움으로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10여명의 대학원생들이 모여 북한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08년도 하반기에는 이정철 교수, 임수호 박사가 중심이 되어 이제까지 모임의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북미대립의 기원과 전망'에 대한 논문집을 완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연구논문은 1부 역사편에서 "탈냉전과 前제네바합의 체제", "제네바체제", "6자회담체제"를 살피고 2부 이론편에서 "북한의 핵억지 전략과 제한적 비핵화", "민족 vs 동맹",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상세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통일관련 독일어 원서 강독

이 모임은 본래 지난 1학기를 끝으로 2년간의 독일어 원서(헬무트 콜의 회고록, Einnerungen)강독을 마쳤으나, 학생들의 요청으로 한 학기 연장하여 진행되었다. 박성조 교수(베를린 자유대학 교수)의 지도 아래 9월 19일(금)을 시작으로 격주 금요일(18:00-21:00)에 통일평화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진 이번 수업에는 10여명의 학생이 참여를 하였으며, 독일어는 물론, 독일 통일과 관련한 경제, 정치, 문화적 이슈를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통일아카데미 제5기 수강생 모집 안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통일아카데미>과정 제5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대 상 :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교 대학(원)생
- 접수기간 : 2009년 3월 2일(월) - 3월 31일(화) 오후 5시
- 교육기간 : 2009년 4월 7일(화) - 6월 2일(화), 매주 화요일 19:00 - 21:00 (총8회, 현장학습 1일 별도 추가)
- 교육장소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내 세미나실
- 접수 방법 및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tongil.snu.ac.kr)에 공지하겠습니다.

통일아카데미 제4기 수료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통일아카데미 4기의 수료식이 11월 25일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통일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 하에 마련된 통일교육 사업이다. 이번 제4기 통일아카데미는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8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강의 및 토론, 영상물 시청, 현장학습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한편 8주의 수업프로그램을 마친 후 수료식에서는 총 34명의 수강자 가운데 출석 우수생 29명에게 수료증이 발급되어 통일아카데미가 개설된 이후 가장 많은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횟수	강의날짜	강의주제	강사
1주	10월 7일	(입학식) 21세기적 통일비전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
2주	10월 14일	북핵문제와 동아시아 안보	신욱희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3주	10월 21일	북한의 권력구조와 리더십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민족21사장)
4주	10월 28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교류협력	이주태 (통일부 정책협력과장)
5주	11월 4일	북한의 경제개혁과 시장경제	정은미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
6주	11월 11일	대북지원사업과 NGO	박효근 (월드비전 북한농업연구소장, 서울대 명예교수)
7주	11월 18일	새터민의 탈북, 그리고 남한살이	박정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8주	11월 25일	다원화시대의 통일과 평화 (수료식)	박명규 (통일평화연구소 소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2008년도 통일학 기초연구사업 과제선정

통일평화연구소에서는 지난 7월 14일 2008년도 통일학 기초연구사업 신청을 마감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획/자유과제에 총 15 과제 (약 4억2천9백만원), 논문지원과제에 8 과제(3천2백만원),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에 2편(1천2백만원)이 선정되어 총 4억7천3백여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각각의 과제명은 아래와 같다.

선정과제명

1. 기획/자유과제

- 국내정치체제변동이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 한미일 사례를 중심으로 - 백창재 외 3명
-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시각에서 본 주변4강(網)의 국가전략: 한반도 통일에 주는 함의 - 김상배 외 5명
- 북한경제에서의 정부와 시장: 시장화 가설의 평가를 중심으로 - 김병연 외 1명
-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기구·단체의 활동과 동향 분석 - 박명규 외 3명
- 대북포용정책 10년의 거버넌스 구조와 동학 - 민화협민주평동,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정근식 외 3명
- 대북한 농업지원 및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평가 및 전망 - 김완배 외 1명
- 북한 문학의 재조명: 자료로 본 북한 문학 - 권영민
- 독일통일 20년 국가통합관련 기초자료 조사 - 임홍배 외 2명
- 「조선어학전서」와 북한의 언어학 - 권재일
- 다매체·다채널 시대 방송 기본이념으로서의 “통일” 제도화방안 - 윤석민 외 1명
- 지속가능한 남북한 에너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 - 허은영
- 냉전시대 북한정부의 체제유지 정책과 통일정책 및 외교전략-구동독 외교 사료의 수집과 해제//(2차년도) - 성상환
- 통일 후 남북통합 과학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탈북 청소년의 학습자 정체성 형성과정 탐색-지구과학분야를 중심으로 - 김찬중 외 1명
- 북한사회의 공/사적 세계와 북한주민의 관계 및 소통 특성 - 이순형 외 3명
- 새터민의 여성과 여성결혼 이민자의 생리적 환경 적응 수준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연구 - 최정화 외 1명

2. 논문지원과제

- 체제이행 국가의 경험으로부터의 북한농업에 주는 교훈 - 최영진
-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와의 구조적 연계성 - 이수형
- 북한 지도부의 세대교체(1990-2008)연구 - 김갑식
- 학교급에 따른 학교평화교육 실태의 차이와 의미 연구-사회과를 중심으로 - 설규주
- 미·소 균정기(1945-1948) 서울과 평양의 극장연구 - 이명자
-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활성화 - 이현경
- 새터민의 사이버학습경험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e-Learning방안 모색 - 김현아
- 남남 갈등의 구조 - 김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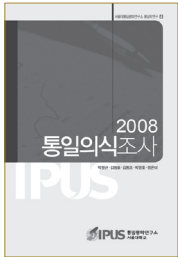
3. 학위논문지원과제

- 관광과 무역을 통해서 본 국경 만들기과 허물기: 조선사람, 조선족, 조선학교, 한국사람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 강주원
- 남한인과 새터민의 요청 및 거절 화행 비교 - 양수경

IPUS 신간안내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연구3
김병로, 신상진, 장경섭, 정은미, 조은희 저
2008.9



2008 통일외식 조사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연구4
박병규, 김병로, 김병조, 박영호, 정은미 저
2008.11

제2기 운영위원 및 겸무연구원 위촉

• 운영위원

직위	성명	학과
위원장	박병규	사회학
위원	강대희	의학
위원	김병연	경제학
위원	황상익	의학
위원	임홍배	독어독문학
위원	신우희	외교학
위원	전재성	외교학
위원	권영민	국어국문학
위원	장달중	정치학
위원	박태균	국제학
위원	이태호	농경제사회학
위원	이순형	소비자아동학
위원	이재홍	전기공학
위원	정형민	동양화
위원	이철수	법학

• 겸임연구원

성명	학과	성명	학과
권영민	국어국문학	강명구	언론정보학
김명환	영어영문학	이은주	생명과학부
정용욱	국사학	최명애	간호학
권재일	언어학	박근수	전기·컴퓨터공학
김영나	고고미술사학	박형동	에너지시스템공학
김세균	정치학	이태호	농경제사회학
장달중	정치학	이근관	법학
신우희	외교학	한인섭	법학
윤영관	외교학	김기석	교육학
하영선	외교학	이순형	소비자아동학
이승훈	경제학	신희영	의학
임현진	사회학	황상익	의학
장경섭	사회학	오연천	행정학
정근식	사회학	김정욱	환경계획학
김광역	인류학	백진현	국제학
박삼옥	지리학	박태균	국제학
조흥식	사회복지학	곽수근	경영학

연구원 동정

- 8월. 평화연구실 신설로 전재성 교수를 평화연구실장 위촉
- 9월. 황지환 선임연구원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전임교수 임용에 따른 후임 이상신 선임연구원 임용(9/1)
- 9월. 정동준 조교 임기만료로 후임 조덕현 조교 임용
- 9월. 권우영 연구조교로 신규임용



이상신 선임연구원

- 황상익 교수((사)어린이어깨동무 남북보건의료협력위원장)는 '평양의학대학병원 어깨동무 소아병동' (210병상)의 준공(10/24)에 앞서 9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신축병동에서 진행된 평양의대병원-서울대병원 의료기술전수 프로그램에 서울대병원 의료진 20여명과 함께 참여하여 남측이 지원한 의료장비들의 활용과 환자진료에 대한 기술전수를 수행, 중국 연변대학에서 열린 "제4차 동아시아 인문학학술대회" (10/18~20)에 참석하여 북한 사회과학원 학자(7명) 등과 함께 인문학 발전방향과 남북 학술교류 등에 대해 논의

- 박정란 선임연구원, 통일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12월 통일연구원(KINU) “국제 NGO의 원조 정책과 활동 연구” (공저) 발간, 12월 아테나위재단 ‘민간단체의 탈북자 지원 현황과 과제’ (공저) 발간
- 정은미 선임연구원 8월 22일 남북공동영농사업장인 개성 송도리협동농장 방문, 9월 27~30일 북한 어린이 콩우유지원사업 모니터링을 위해 평양방문
- 허정범 연구원이 사직함에 따라 한준성 연구원이 2009. 1. 1자로 임용
- 2009년 1월 이상신 선임연구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심포지움에 발표를 위해 출국 예정

해외교류

- 박명규 소장 평양방문
 - 2008년 10월 23일(목)~26일(일), 평양의대 소아과병원 준공식에 서울대학교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참가, 남북의료협력 상황 논의.
- 박명규 소장, 2008년 8월 7일(목)~9일(토) 간 권영민 교수 및 중앙도서관 관계자들과 함께 일본 김학렬 박사 소장 북한문학자료 검토 및 기증을 위해 일본방문.
- 박명규 소장, 2008.9.30~10.8(9일간) 북유럽의 평화연구소 방문, 발표와 연구협력을 논의했다. 2008년 10월 3일 스톡홀름의 국제안보전략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 Development Policy)에서 “Recent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란 주제의 발제를 했고 이 자리에는 니클라스 스완스트롬(Niklas Swanström) 소장을 비롯하여 스톡홀름 대학 잉골프 키에소우(Ingolf Kiesow) 교수 외 여러 관련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박소장은 또 노르웨이의 평화연구소(PRIO), 오슬로대학, 헬싱키 대학 및 헬싱키의 유엔세계발전연구소(UNU-WIDER)를 각각 방문하고 유럽의 평화학 연구 및 한국학 연구현황을 알아보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 3국은 경제적인 부국일 뿐 아니라 일찍부터 ‘평화연구’의 주요한 거점으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평화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오슬로 대학 박노자 교수 본 연구소 방문(2008년 8월 2일)
- 스톡홀름의 국제안보전략연구소 니클라스 스완스트롬 소장과 잉골프 키에소우 대사 본 연구소 방문(2008년 8월 25일)

2009년도 행사안내

- 2009년 새터민 포럼 개최
 - 일시 : 2009년 2월 3일(화) 오후 2시-4시
 - 장소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세미나실
 - 초청자 : 현인애(현 NK 지식인연대 사무국장, 전 북한 청진의학대학 교수)
 - 주제 : 북한의 대학과 지식인
 - 내용 : 최근 북한의 대학 생활과 지식인들의 인식, 문화에 대한 논의
- 2009 제1차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 개최
 - 일시 : 2009. 2. 5(목)
 - 장소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세미나실
 - 내용 :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남북한 통합과제’를 주제로 총 3회의에 걸쳐 발표와 토론 진행
-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7주년 기념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 주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공동 주관
 - 일시 : 2009. 2. 13(금) ~ 2. 14(토)
 - 장소 : 안면도 오션캐슬
 - 내용 : 남북간 합의의 역사적 조망과 이행과제
- 국제학술회의 - “The Future of North Korea and Global Cooperation”
 - 주관 : 캐나다대사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공동 주관
 - 일시 : 2009년 3월 13일(금)
 - 장소 : 프레스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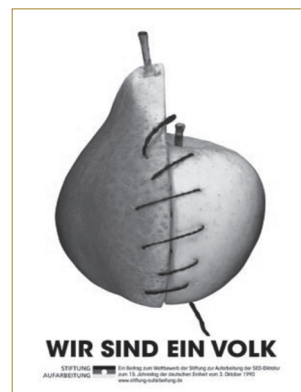
해외 탈북자 실태 조사

통일평화연구소는 2008~2009년의 기획연구로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North Korean Diaspora): 북한주민의 국제적 이동과 정착실태 비교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박명규 소장의 책임 하에 통일평화연구소의 김병로 교수와 통일연구원의 김수암 박사, 세종연구소의 양운철 박사,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의 원재천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를 국내입국·정착이라는 기존의 체제경쟁적 시각에서 보지 않고 탈사회주의 체제변화와 구성원들의 해외 이주(migration)와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조사하고 비교분석하는 작업이다. 탈북한 이후, 한국으로의 입국 뿐 아니라 세계로 흩어진 탈북자의 전체규모와 경로를 파악하고, 현지국에서의 적응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탈북자 대책의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입국 세터민 적응실태와 지원정책에 관한 문제를 보편적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탈북현상을 탈냉전 이후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줌으로써 탈북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통일준비를 실질적으로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독일통일 포스터 대학순회 전시회〉 개최

평화문제연구소와 한스자이델재단이 주최하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주관한 “독일통일 포스터 대학순회 전시회”가 서울대학교 문화관 2층 로비에서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는 “History-codes: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주제로, 독일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독일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포스터 30여점이 전시되었다.



2009년 북한 공동사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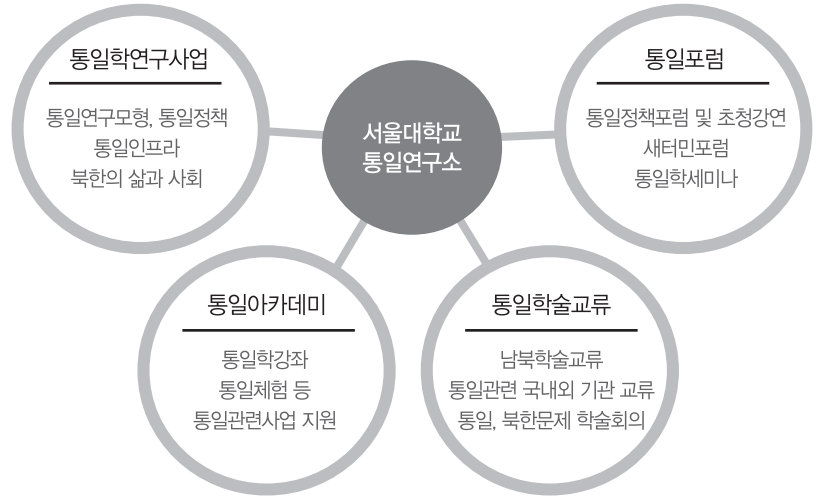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는 ‘2009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에 대하여 전문가 집중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소의 김병로 연구교수를 비롯한 이상신, 정은미, 박정란 선임연구원이 직접 작성한 총 네 편의 시리즈는 연구소 홈페이지(<http://tongil.s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분석글의 주제는 아래와 같다.

- [총론] 북한의 신년공동사설로 본 2009년 한반도 정세 전망_김병로
- [대외관계] 비핵화, 그리고 침묵의 소리_이상신
- [경제분야]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경제노선과 ‘제2의 천리마대고조’를 향한 공명(空鳴)_정은미
- [정치사회분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이상적 모델, ‘천리마 운동’의 임계점_박정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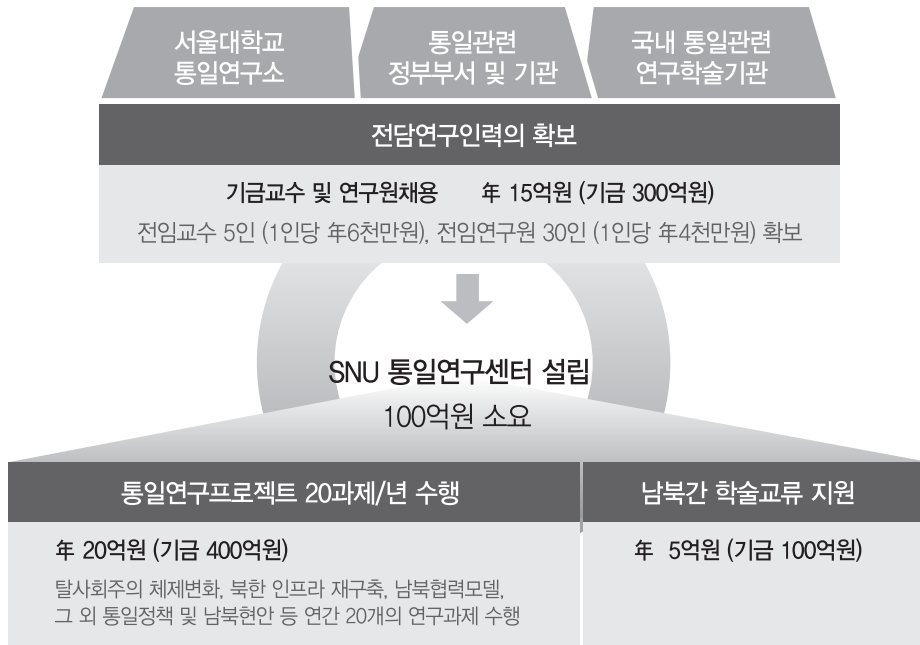
SNU 통일연구센터 설립

남북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추진, 서울대학교가 책임져야 할 국가적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국내 통일연구의 체계화,
남북간 학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통일연구센터의 설립 및
 초기 운영을 위한 비용
220억원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통일연구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내 통일학 연구를 종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센터 설립에 참여하실 분에게는

- ▶ 10억원 이상 기부하실 경우 출연자 존함의 기금명(SNU○○○통일학연구기금)으로 체계적인 통일학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 초빙교수, 전문가육성 프로그램은 일정기간 소요비용(연간 약 6천만원) 만을 지원하실 수도 있으며 해당기간 동안 프로그램 명칭에 출연자 존함을 부여해 드립니다.

Only One 300억원 이상 기부



통일연구센터명에 기부자의 이름을 부여

